

川崎病的 治驗例

崔 長 福*

「1960年代 日本 赤十字 醫療本部 川崎博士의 小兒科 臨床經驗으로 2·3歲된 幼兒들에게 病原體가 分明치 않은 恰似紅痘(麻疹)과 猩紅熱같은 高熱과 皮膚發疹으로 流行되는 小兒疾病에 對하여 世界保健機構(WHO)에 報告된 以來 이病은 傳染病과 같이 全世界的으로 流行하여 傳染性도 빠르고 幼兒死亡率도 相當히 높은 不可思議의 症狀으로 所謂 가와사기(川崎)病이라고 WHO에서 命名한 幼兒傳染病이라 한다. 筆者가 怪異한 이 川崎病을 治療한 經驗에 對하여 暫時 紹介하면 昨年 가을 料理店을 하는 中國人 男子가 3歲된 女子아이를 안고 와서 메모지에 「可死氣病」이라고 쓴 쪽지를 내보이며 “우리 지배(계집애란 말) 진찰 받아했어. 可死氣病이라. 이거 죽어지 않아? 注射 두 번 맞았어. 熱이 많이 있어. 밤을 아니 먹어 속이 상해. 우리 사람 죽어했어…” 서투른 우리말로 매우 걱정스럽게 말한다. 안고 온 여자 아이를 자세히 診療하니 눈에 充血이 되어 있고 熱이 39度나 되며 耳下腺炎(볼거리)까지 兼하여 耳下項部까지 浮氣가 있고 呼吸이 거칠며 목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린다. 목 안을 자세히 보니 咽喉에 紅斑과 靑粘膜이 끼어있어 幼兒들에게 잘 걸리는 「디프테리」症狀임을 卽感하고 加味葛根湯 3日分을 投藥하고 平素에 備蓄하였던 鱧魚膽을 溫水에 溶解하여 咽喉에 塗布한 後 이 藥을 하루 두 첩씩 먹이면 잘 나올 터이니 安定과 保溫에 留意할 것을 자세히 말하여 보냈다. 3日後 그 中國人 內外분이 아이와 함께 다시

와서 “우리 지배 같이 놀아. 藥 먹고 많이 좋아졌어. 감사해요” “經過를 자세히 물은 後 二次로 九味柴胡湯과 升麻葛根湯 各 2日分을 더 지어 服用시킨 결과 아주 完快되었다는 致謝 말을 들었다.

이 中國人은 가와사기病을 漢字發音 그대로 可死氣病이란 죽을 病으로 生覺했던 모양이다

이 川崎病은 病原體가 未分明한 一種의 流行病이다. 麻疹이나 風疹과 同質症狀의 幼兒病이므로 前述한 加味葛根湯이나 升麻葛根湯 九味柴胡湯을 適切히 選用하면 確實히 治療可能한 것으로 思慮된다. 特히 디프테리아 治療에 鱧魚膽 性能에 對하여 詳考하여보면 古書에 凡膽이 皆苦나 惟鱧魚膽味甘이니 喉將死者 點人卽差요 病甚者 水道灌之라 하였고 小兒 디프테리 咽喉炎, 啞啞聲에도 特効있는 妙藥임을 數次 經驗하였다. 大韓基督韓醫師會主催로 每週 土曜日에 開催되는 韓國學術講座에 日本 桑木博士를 招請하여 臨床에 對한 講義를 들은 적이 있는데 筆者도 末席에 參席하였다가 桑木博士에게 川崎病에 對하여 質問하고 加減葛根湯과 九味柴胡湯으로 治驗談을 發表한 바 桑木博士도 매우 좋은 適切한 處方이라고 同感하며 日本漢方界에서도 耳下腺炎(日本에서는 오다후구가제阿多福風邪이라 함)에는 葛根湯에 加減한 處方이나 九味柴胡湯을 選用한다며 幼兒에게 毒性이나 아무 副作用이 없는 適切한 處方이라고 讚辭말을 하였다. 九味柴胡湯과 加味葛根湯 處方을 하여 讀者諸位께 多小나마 參考가 되었으면 甚幸일가 한다.

* 서울, 聖濟韓醫院長

加味葛根湯

葛根 12，麻黃 6，桂枝 芍藥 石膏 桔梗，甘
草 4，干 3，棗 2。

九味柴胡湯

柴胡 黃芩 玄參 4，半夏 甘草 當歸 芍藥 3
龍膽 梔子 2。